



고구려대-조선대 '교육프로그램 교류' 업무협약 교육의 질 제고, 교육 모델 공유 및 확산 상호협력



고구려대학교(총장 김형배)는 2017년 9월5일(화) 본교 2층 소강당에서 조선대학교(총장 강동완)와 교육프로그램 교류 업무협약(MOA)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교육 모델을 공유 및 확산을 통해 상호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양 기관은 교육과정 공유, 교육지원 프로그램 교류, 학술정보 및 출판물 교환 등을 통해 교수역량 강화 및 학습역량 강화에 상호협력하게 된다. 고구려대 김형배 총장은 “급격하게 변화하는 교육환경속에 학습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육모델이 필요하다”

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우수한 교육모델을 발굴 및 개발해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구려대는 이날 조선대 홍성금 교수(ACE 사업단장)를 초청,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역량강화를 위한 교수법 특강을 진행했다. / 이강희 기자

2017학년도 학위 수여식

2018년 2월 9일 11:00 대강당에서 열려

고구려대학교는 2018년 2월 9일 오전 11시 본교 대강당에서 2017학년도 졸업생 학위수여식이 진행된다. 이날 졸업식을 맞이한 고구려대학교 2017학년도 졸업생들은 2년 또는 3년의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학위수여를 받게 된다. 고구려대학교에 따르면 2월 9일 오전 11시 본교 대강당에서 2017학년도 학위수여식에서 이사장상에는 치위생과 채승효를 비롯하여 나주시장상에는 의료관광복지과 이복실, 나주시의회의장상은 청소년복지상담과 이민선, 해남군수상은 사회사업복지과 윤진하, 해남군의회의장상 사회사

업복지과 백진정 졸업생들이 수상할 예정으로 그 외 다수 외부수상기관 수상이 진행될 계획이다. 학위수여식에서는 최우수상과 우수상수상도 예정되어 있으며 2017학년도 전기학위수여식에서는 각 학과에서 추천받은 공로상을 평생교육복지과 졸업생 이병주 등 74명이 수상할 예정이다. 졸업생들은 소정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사회진출의 출발점에 서게 된다. 그동안 배운 교육을 바탕으로 행복과 함께 사회생활에서 적극적으로 자아를 성취해나갈 것을 기대해본다. / 박시연 기자

교육기부로 학생들의 꿈과 끼 '쑥쑥'

고구려대학교, 광주 광일고 진로진학박람회 참여



고구려대학교(총장 김형배)가 지난 10월 20일 광주광역시 광일고 제2회 진로진학 박람회에 참가하여 교육기부를 진행했다. 이날 고구려대학교는 식용곤충의 종류별갈색거저리(애칭 고소애), 장수풍뎅이, 흰점박이꽃무지, 아메리카왕거저리, 쌍별귀뚜라미, 벼메뚜기 성충 및 유충 전시, 식용곤충 시식 행사를 진행하는 등 6차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곤충산업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 참가한 광일고 학생은 “식용곤충은 혐오대상으로 느껴 거부감이 많았으나 이번 행

사를 통해 곤충산업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다. 곤충산업과 김재근 학과장은 “학생들의 진로와 미래설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행사에 매년 참가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다양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기부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 1일 농촌진흥청으로부터 곤충산업 전문인력 양성 기관으로 선정된 고구려대학교는 지난해 광일고 제1회 진로진학 박람회에 참가하여 교육기부를 한 바 있다. / 이강희 기자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MOU 체결

지역예술극단 파도소리 및 예인방과 산학협동협약 체결



고구려대학교(총장 김형배)는 지난 10월 21일 공연예술문화 활성화를 위한 전문예술극단 파도소리, 사)한국문화예술산업진흥회(이상 강기호 대표)와 전문예술극단 예인방, 사)한국예술문화산업진흥원이상 김진호 대표과 산학협동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고구려대학교는 지역사회의 문화예술공익사업, 문화·예술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문화행사를 통한 교

육기부, 기타 양 기관 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부분에서 상호협력기로 했다. 공연예술복지학부 김성진 학부장은 “지역의 공연예술 분야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대학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기술, 인력 등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구려대학교는 2014년부터 해남군과 함께 ‘강강술래 대중화 및 문화관광 상품화 사업’을 2년 동안 시행하고 목포시에서 지원 육성하는 전국 규모의 극예술연구회인 김우진연구회를 10여 년 동안 적극 후원하는 등 문화예술 관련 기관 및 단체와 산학협력을 체결하고 기술자문, 협력 및 후원하는 등 문화예술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 박시연 기자

2018학년도 주요 학사일정

입학식, 3월 5일 11:00 대강당 실시

고구려대학교는 오는 3월5일 오전 11시 본교 대강당에서 2018학년도 입학식을 시작으로 2018학년도 1학기 개강과 더불어 학사일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2018학년도 신입생들은 19학과 학부과정에 입학, 편입하게 된다. 3월 5일 입학식에 이어 각 학과별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될 계획이다.

2018학년도 1학기 신입생 및 재학생들의 '수강신청 및 정정기간'은 3.5(월)~3.9(금)까지 실시하게 된다. 3.22(목)~3.23(금)까지 '연합 MT 및 총학생회 출범식'이 예정되어 있고 4.23(월)~4.27(금)에는 2018학년도 1학

기 '중간고사가 실시될 예정이며 2018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는 6월 18일(월)~22일(금) 실시된다.

한편 6.22(금)부터 '하계방학'이 시작되며 6.25(월)~6.27(수)까지 '성적입력기간'이며, 6.28(목)~6.29(금) '성적공고 및 이의신청'을 갖게 된다.

7.9(월)~8.3(금)까지 '하계 계절학기' 실시하게 되며 7.16(월)은 '개교기념일'이다. 8.24(금)에는 2017학년도 '후기학위수여식' 계획되어 있으며 8.27(월) 2018년 '2학기 개강'이 계획되는 등 2018학년도 주요 학사일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 이강희 기자



노인복지센터 “노인 문화나눔사업 진행”

고구려대학교 노인복지센터는 2018년 1월31일(수) 나주혁신도시 CGV 영화관에서 독거노인32명, 수행인력(생활관리사)8명을 대상으로 영화 : “그것만이 내 세상” 관람하는 문화나눔 사업을 진행하였다.

고구려대학교 노인복지센터의 이번 행사는 CJ와 독거노인지원센터에서 후

원하는 홀로사는 어르신을 위한 CJ E&M 문화나눔사업을 진행하였다.

도시지역에 비해 문화지원이 취약한요 보호 독거노인들에게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 여기문화지원의 기회를 제공하여 어르신의 고립감 경감 및 정서적인 지지를 할 수 있었다.

/ 이강희 기자



대학 상담센터 “본관동 1층 새단장”



고구려대학교 상담센터가 본관동 1층에 새 단장을 마치고 2017년 12월 10일 대 소그룹으로 이루어진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대소그룹 상담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은 일상에서의 상처들과 자신이 준 상처들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고 고 스트레스가 어디서 오는지에 대해서

도 생각하게 되었다는 소감을 전했다. 그 밖의 학생들 또한 내용이 유익했으며 즐거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학업과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고구려대학생들의 많은 이용이 예상된다. 이용 방법은 행정실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 박시연 기자

사회복지과 박상하 교수

‘나주시사회복지협의회장’ 취임

우리대학 사회복지과 박상하 교수는 지난 2017년 8월 29일 나주시사회복지협의회장에 취임하였다. 나주시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민간 사회복지의 대표기관으로 조사연구 및 복지정책개발 등 지역복지 발전을 도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사회복지과 박상하 교수는 민간사회복지기관 대표기관으로써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사회복지협의회 활동뿐만 아니라 2017년 광주광역시 7명의 연구진을 구성하여 광주지역고용

실천전략을 수립하는데 박상하교수가 총괄 책임을 맡았다.

총괄 책임을 맡아 ‘지역고용실천전략’은 고용노동부 주관하에 전국 17개 시도별로 추진되었으며 공통과제와 자율과제로 구분하여 실천적 추진전략을 수립하였다.

한편, 전남인적자원개발위원회 주관으로 2017년 전남지역 인력 및 훈련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진리서치와 공동으로 보고서를 발간하였는데 연구책임자 역할을 수행하였다.

/ 박시연 기자

평생교육복지과 정석희 교수

대학 노인복지센터장 취임

우리대학 평생교육복지과 정석희 교수는 지난 2017년 12월 1일 고구려대학교 노인복지센터장에 취임하였다.

평생교육복지과 정석희 교수는 전국 최초 대학 재가노인센터로 출범한 고구려대학교 노인복지 센터장에 2017년 12월 1일 보직 임명을 받고 노인복지센터장에 취임하여 나주시지역노인복

지센터의 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난달 31일에는 나주혁신도시 CGV 영화관에서 독거노인32명, 수행인력(생활관리사)8명을 대상으로 “홀로사는 어르신을 위한 CJ E&M 문화나눔사업 진행”을 진행하였다.

/ 이강희 기자



다양한 미디어 활용으로 공동체, 지역주민자치, 지역문화 활성화 하자

다양한 미디어의 발달은 미디어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상호간의 의사소통과 문화가 달라진다. 미디어의 활용은 나아가 주민주권시대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중심적기능을할 것이다.

젊은 세대와 구분 짓는 것 중의 하나는 텔레비전 안테나에 대한 담론일 것이다.

텔레비전 안테나에 대한 이미지를 부담 없이 가지고 있다면 요즘은 흔히 말하는 젊은 세대라고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제는 텔레비전 안테나가 없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세대에게 텔레비전 안테나에 얽힌 추억을 이야기 해주어도 쉽게 이해하지 않는 담론으로 취급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사라져버릴 것 같았던 이러한 올드미디어 산업들인 신문이나 라디오 방송 등이 새로운 변신을 보이고 있다. 첨단기술의 발전에 따라 급속하게 융합과 분화를 거듭하고 있는 뉴미디어분야가 아닌 전통적인 매체인 지면이나 전파를 이용한 미디어들의 발전은 틈새시장을 개척하는 것으로 보여

지기도 하고 지역주민자치의 시대가 실질적으로 정착해가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분명, 대량부수를 인쇄하던 신문이나 공중파를 이용한 방송의 시장규모는 축소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와는 다른 측면에서 최근 많은 수의 신문들이 창간 또는 발행되고 있는 데 이는 지역중심의 매체들이라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발행되는 공동체 신문의 경우는 매우 높은 열독율을 보이고 있다. 주변의 소식을 전달하는 본래적기능과 지역의 사랑방과 같은 역할을 지속해 나아갈 수 있다면 이 매체를 중심으로 공론이 형성되고 지방자치의 넘어 주민자치의 시대를 앞당길 수도 있다. 같이 공감하고 소통하는 지역문화를 활성화하는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측면의 전통적인 미디어 분야는 라디오(Radio) 방송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라디오도 일정부분 높은 청취율을

보이고 있고 라디오만을 고정 청취하는 충성도 높은 수용자 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매체의 매력적인 면을 재인식하게 한다.

올드미디어인 라디오의 주 청취대상은 자동차 보급과 함께 운전 중 영상을 시청할 수 없는 상황에서 라디오를 수용하는 현상으로 귀결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교통방송 라디오는 자동차와 시너지 효과를 보이고 있는 상호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다양한 발달을 기대하게 하고 있다.

제도적으로 분화된 라디오 가운데 하나는 공동체라디오 방송이다, 현행 상황은 공동체라디오 방송진흥법의 시행으로 소출력 범위의 공동체 라디오 방송이 활성화되는 틀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공동체 라디오 방송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다양한 미디어의 발달을 위해서는 이러한 공동체라디오 방송의 확대도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라디오미디어의 분화의 현상은 팟캐스트(podcast)에서 찾아 볼 수 있게 되었다. 분명 변화의 흐름을 바꿀 수는 없을 것이다.

텔레비전 안테나가 일반적인 시대에서 지금은 텔레비전 모니터가 일반화되지 않은 시대로 나아가 개인미디어 장비를 이용한 다양한 매체적 접근이 가능한 개인 미디어의 시대로 변화해가기 때문이다. 무수한 분화와 융합이 앞으로 전개될 것이고 새롭게 등장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간과해서 안 될 부분이 미디어의 다양한 분화와 더불어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미디어 활용의 주체가 개인, 주민에게 돌아가는 명확히 주인이 되는 쪽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이 중심이 되고 시민이 활용의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때 주민이 지역의 중심이 되어 주민주권이 확보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문화는 활성화 될 것이다.

사랑의 온정 나누기 활동

제22회 사랑, 존중, 행복 나눔 1교1촌 봉사활동 전개

고구려대학교(총장 김형배)가 사랑의 온정나누기 활동을 실시하였다. 고구려대학교는 2017년 11월 11일 송학동 경로당(광주시 광산구 소재)에서 제22회 사랑, 존중, 행복나눔 1교 1촌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고구려대학교 사회복지과 빛 봉사단

주관으로 실시하는 이번 행사는 희망우산봉사단, 광산구 자원봉사센터 등 다양한 단체들이 참여하여 옷·이불빨래, 이·미용봉사, 네일아트 실시 등 봉사활동과 더불어 난타공연 등 어르신들을 위한 한마당큰잔치로 구성되어 있다.

김형배 총장은 “겨울을 앞두고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이번 봉사활동을 준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다채로운 봉사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구려대학교 사회복지과 빛 봉사단은 1996년 “작은 사랑으로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자”는 구호 아래 해마다 집수리봉사, 연탄나눔, 환경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 최지혜 기자

다시초 학생 초청 식용곤충 체험 실시



업 청소년 비즈쿨 체험학습'은 고소애(갈색거저리의 애칭) 쿠키 만들기 체험, 식용곤충 시식 등을 통해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해 아이들의 정서 함양에 도움을 주고 곤충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체험 프로그램이다.

고구려대학교(총장 김형배)가 미래산업 곤충산업의 활성화와 식용곤충을 이용한 산업화 전략 및 식용곤충 섭취에 대한 국민적 인지도 계몽에 나섰다.

고구려대학교는 미래의 청년들인 주다시초등학교(교장 이경희)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곤충산업 청소년 비즈쿨 체험학습'을 운영했다. '곤충산

김재근 곤충산업과 학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은 곤충과의 교감으로 정서가 함양되고, 미래 식량으로서의 곤충의 가치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대학의 다양한 지식과 기술적 역량을 지역사회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 이강희 기자

고구려대학교신문사

이 신문은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발행인 | 김형배 편집인겸 주간 | 강철수
인쇄인 | 김선문 편집장 | 박시연
대표전화 | 061-330-7431
E-mail | cskang@kgc.ac.kr

기사제보 및 원고 :

전라남도 나주시 다시면 백호로 125
본관 321호실 고구려대학교신문사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에 앞장서

전문예술극단 예인방과 협력 공연

고구려대학교(총장 김형배)와 전문예술극단 예인방(대표 김진호)이 지난 12월 11일 연극 〈아버지와 나와 흥매와〉를 한국농어촌공사 KRC아트홀 무대에 올렸다. 김호영, 홍순창 원로배우와 함께 임은희, 이현기, 박선영이 펼친 연기양상들이 돋보였고 이승호의 사실주의 연출력이 빛낸 수작이라는 평가다.

올들어 가장 추운 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700여명 넘는 관객이 공연장을 찾아 일부 관객은 객석 바닥에 앉아서 관람할 정도로 성황을 이뤘다. 이는 혁신도시가 들어서면서 관객층이 더욱 다양하고 두터워졌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지역대학과 예술단체가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협력 제작한 작품이어서 주목 받았다.

고구려대학과 극단 예인방은 산학협력을 맺고 20여년 넘도록 활동해 왔다. 공연예술복지학부는 기술지원을 맡고, 예인방은 현장실무 교육지원에 협조했다. 그 결과물로서 〈드림! 드림! 드림하이!〉, 〈김치〉, 〈엄마의 강〉, 〈무어별〉 등과 같은 수준 높은 연극들을 제작한 것이다.

양 기관은 공연물 제작에만 그치지 않고 문화예술 나눔을 선도했다. 〈드림! 드림! 드림하이!〉, 〈엄마의 강〉 등을 들고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농산어촌 문화예술소외지역까지 찾아가 공연하며 문화 향유에 크게 기여했다.

또한 공연 및 치유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극예술전문기관으로도 성장하고 있다. 지난 2013년부터 2년 동안 '강강술래 대중화 및 문화관광 상품화

사업'을 수행했으며, 전국 규모의 김우진연구회를 10여년 동안 적극 후원했다. 또한 놀이형강강술래 치유프로그램 콘텐츠와 세계원형민속춤페스티벌을 개발해 예술치유와 문화향유를 동시에 만족시켜 높게 평가받은바 있다.

갈수록 지역의 공연예술 분야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대학이 지역단체와 함께 문화예술 활성화에 앞장서기로 했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이다.

앞으로도 양기관은 문화예술 활성화 협약에 의거 예술단체와 학교가 일정한 공연물을 창의적이고 협동적으로 생산, 향유하는 문화예술활성화 캡스톤디자인(Capstone Design) 프로그램을 선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 최지혜 기자



독서보다 TV+인터넷... 책 안 읽는 대학생들을 위한 추천도서와 독서TIP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by 히가시노 게이고



이 소설은 히가시노 게이고의 장편 소설이다.

작년부터 꾸준히 소설 추천도서 순위에서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도

이 소설에 대한 인기는 식을 줄 모른다.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묘한 편지를 주고받으며 각각의 편지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그들의 이야기가 이어져 있어 한번 읽기 시작하면 끝까지 다 읽게 되는 그런 마성의 소설이다. 판타지 적이며 시간여행에 관한 소설을 좋아하는 대학생이라면 이 소설을 추천한다.

〈숨결이 바람 될 때〉
by 폴 칼라니티



이 책은 서른여섯의 젊은 의사가 남긴 2년간의 기록을 담은 책이다.

이 책의 저자 폴 칼라니티는 많은 대학으로부터 교수직을 추천받던 신경외과 레지던트 의사였지만 그에게 아무런 예고 없이 찾아온 폐암은 그의 삶을 바꿔버린다.

독자들의 눈물을 억지로 짜내는 책이 아닌, 폐암에 걸린 후 희망과 좌절 사이에서 방황하던 그가 마침내 죽음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글로 표현해 많은 이들에게 자신의 삶에 대한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그런 책이다.

독서 습관을 기를 수 있는 TIP!

독서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후 억지로 책을 읽기 시작하면 처음 한두 번 정도는 읽을 수 있지만, 그 후부터는 오히려 독서 자체가 지루해질 수 있다. 독서를 할 때 즐거움과 흥미로움을 느껴야 자주 책을 보게 되며 자연스럽게 독서 습관이 길러질 것이다.

적당한 양의 책을 골라 읽어라

처음부터 너무 두껍고 양이 많은 책보다는 적당한 양의 책이 좋다. 두껍고 많은 내용이 담긴 책을 읽으면 오히려 집중력이 떨어지고, 독서를 하는 것이 일이라고 느껴져 다음에는 전혀 독서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을 확률이 크다. 조금씩 장수를 늘려가는 것이 좋다. 이와 함께 이해하기 힘든 책을 골라 읽기보다는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의 책을 읽어 독서 습관을 더욱 쉽게 기를 수 있다.

책을 읽은 후의 느낌을 간단히 기록하라

책을 읽은 후 간단한 독후감이나 책에 대한 후기를 자신의 다이어리나 SNS에 글로 남겨두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매번 책을 읽고 후기를 남겨보면 나중에 다시 자신이 직접 쓴 후기를 읽어봤을 때 성취감이 느껴지고 강한 동기부여가 될 것이다.

/ 박시연기자

고구려대학교는 학습역량강화 “기억력 향상법” 실시

고구려대학교는 학습역량 강화를 위해 “기억력 향상법” 특강을 2017년 11월 25일 본교 소강당에서 고구려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기억력 향상법” 프로그램은 전남대학교 박덕희 강사가 특강을 실시하였다. 이번 프로그램에서 밝힌 기억력 향상법의 주요 내용은 ‘기억법을 알면 누구나 쉽게 외울 수 있다’고 한다.

우선 첫 번째, 뇌가 저장하기 좋아하는 정보를 알아보면? 우선 반복, 소리, 다양한 감각, 정서, 정보와 연결, 이야기 등이 있다.

또 잠자는 뇌 깨우는 방법론 음식으로 건강한 뇌 만들기, 카페인보다 더 강력한 힘, 낮잠하루 30분 운동 독서, 일기, 외국어 회화 등이 있다.



자세히 알아보면

- 기억법1 복습하라, 단기기억을 장기기억으로 바꾸는 힘
- 기억법2 저장과 인출을 반복하라 문제집 풀기, 문제 출제하기, 쓰고, 쓰고, 또 써라, 소리 내어 읽기, 새도 읽기, 남에게 가르쳐 주기
- 기억법3 단어장을 활용하라 플래시카드, 말로 암기하기, 절반을 가리고 확인하기
- 기억법4 덩어리 짓기 정보를 의미 단위로 묶으려면 많이 보고, 많이 경험해서 머릿속에 저장된 정보가 많아야 한다.

- 기억법5 이미지로 상상하라
 - 기억법6 장소를 활용하라
 - 기억법7 작업 기억력 높이는 훈련, 매일 20~30분 씩, 하루 3번 작업 기억 훈련
- 이러한 방법을 활용하면 시험기간 혹은 중요한 일을 효율적으로 기억할 수 있다. “기억력 향상법”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여 학습역량을 키우는 프로그램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 최지혜 기자

독서 동아리 “책갈피” 멘토 멘티 행사 실시



11월 11일 동아리 ‘책갈피’에서 자발적으로 멘토, 멘티를 맺은 1학년과 2학년이 빼빼로와 소소한 선물을 교환했다. 평소 책을 읽거나 자신이 자신있는 과목에 대해서 토론했던 이들은 ‘과도 다른 선배에게 이런 선물은 받을 줄 몰랐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다음 학기인 18년 1학기에도 새로운 신입생 후배들과 같은 행사를 하겠다는 취지와 반응을 보였다.

/ 박시연 기자

학습역량강화 성공적인 프레젠테이션 디자인 실시

고구려대학교는 학습역량 강화를 위해 “성공적인 프레젠테이션” 특강을 2017년 12월 2일 본교 대강당에서 고구려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성공적인 프레젠테이션” 프로그램은 전남대학교 유

재남 강사가 특강을 실시하였다. 이번 프로그램에서 프레젠테이션의 의미와 목적,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기획과 구성과 효과적인 전달 기법 그리고 슬라이드 디자인 등의 순서로 진행하였다.

/ 이강희 기자



독서 동아리 부원모집

독서 동아리 “책갈피” 함께 토론하는 정 부원을 모집합니다!

- 일 시 : 2017년 10월부터~
- 모집 인원: 0 명
- 특이 사항: 책을 좋아하고 꾸준히 활동할 수 있는 학우 누구나!

치위생과 “치위생과 학술제” 개최

고구려대학교 치위생과는 “치위생과 학술제”를 2017년 11월 28일 개최하였다. 치위생과 학술제는 연구 목적으로 아동들의 구강보건 형태와 지식을 조사하여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아동구강보건사업 및 교육계획의 기초자료로 쓰고자하여 개최하였다.

학술제 현장에서 학생들의 전문적인 지식 전달과 치

위생 연극으로 많은 웃음을 주었고 현장에 있던 기자도 다양한 준비활동과 개최 할 수 있게 된 그동안 많은 노력과 수고에 감동을 받았다. 이번 치위생과 학술제가 성공적으로 마친 데에는 학생들의 열정과 학과 교수들의 지도가 역할 하였다. 학술제를 지도 감독한 치위생과 박문숙 교수는 학술제를 통해서 구강보건교육자의 자질을 갖추고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구강건강 지킴이의 역할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 최지혜 기자





학생 칼럼

가상화폐의 열풍이 뜨거워지면서 대학가도 들썩이고 있다. 용돈이나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자신의 계좌번호를 남기면서 입금을 요청하는 게시글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다. 큰돈을 벌 수 있다는 믿음으로 대학 등록금 등을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대학생들이 대부분이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따르면 최근 하루에 수십건 씩 대학 등록금을 잃었다는 게시글이 올라오고 있다. 대부분 최근 가상화폐 열풍이 불었을 때 투자한 대학생들로 학비 문제를 주로 토로했다. 이씨는 이달 초 원금의 수십 배는 벌 수 있다는 지인의 소개로 가상

비트코인 투기... 멧모르고 뛰어들다 낭패

(평생교육복지과 1년 이강희)

화폐인 비트코인과 리플 등에 투자했다가 보름 만에 원금의 75%를 날렸다. 투자 초기만 해도 지인의 말대로 어느 정도 수익을 봤지만, 최근 정부 관계자들의 비트코인 규제 검토 발언이 이어지면서 수익이 손실로 바뀐 것이다.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는 김씨는 복학을 앞두고 부모로부터 전세 값으로 받은 4000만 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2800만 원을 잃었다. 그는 학비를 내고 나면 원금 월세 보증금으로도 부족하며 도움을 호소했다.

이 같은 사례는 현재에도 커뮤니티 게시판과 SNS 등에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다.

또한 고등학생, 심지어 중학생들에게도 비트코인 투자 광풍이 몰아치고 있다. 최근 중고생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인터넷 방송 사이트에서 24시간 동안 비트코인 투자 방송을 하면서 이에 빠져 있는 학생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2018년 1월 1일부터 미성년자에 대해 비트코인 투자를 금지시켜놨지만 현재 부모 개인정보나 휴대폰을 통해 성인 인증이 가능한 편법들을 공유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분초 단위로 시세의 변동성이 너무 커서 그 시세표를 쳐다보는 데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기는 점이다. 비트코인 투자에 나선 학생들은 비트코인 시세 등락 보느라 수업 시간에도 투자 매매경에 심하게 빠져있다. 이것이 도박이 아니라면 무엇인지 사기가 아닌지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 광풍으로 인한 휩쓸리는 것이 과연 지성인인 대학생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한국에서만 비트코인 투자자가 350만 명이 넘었고 그중 70%가 10~30대 젊은 층이다. 이들이 꿈꾸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흙 수저에서 금 수저로 갈아타는 것인가? 비트코인은 17세기 톨립 파동과 80년대 일본 부동산 거품 그리고 90년대 IT 거품이 그러했듯이 시간이 갈수록 천천히 거품은 빠지고 휴지조각이 될 것이다.

만약 이 젊은 층이 꿈꾸는 바가 흙수저 탈출이라고 생각한다면, 언젠가 하락세를 보일 비트코인에 목숨을 거는 것보다 진정한 탈출이라고 할 수 있는 돌파구는 공부로 신분 상승을 이루는 것이다. 사실 그게 더 빠를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으로 신분 상승을 할 확률을 따져보았을 때, 생산되는 채굴 기업은 중국의 5개 기업, 그리고 생산된 코인의 40%를 상위 0.002%인 약 천명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황장수의뉴스 브리핑 중 인용).

취업한 선배님이 후배에게 들려주는 인터뷰



Interview

유아교육과 최지연, 전경민 선배

Q. 어떤 자격증이 있으면 취업에 도움이 될까요, 선배님!

A. 영양사나 간호조무사가 있으면 취업에 더 좋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거 있으면 다른데 취직하지 왜 유치원 가겠나 하하.

A. 인정.

A. 후배님은 지금 사회복지사 준비 하고 있죠? 졸업 후엔 더 쓸 일이 많을 거예요. 다른 후배님들도 시간이 남거나 수강할 수 있는 학점이 남아있다면 꼭 복수전공하도록 해요!

Q. 유치원에 들어가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A. 원에 기가 썩 선생님들이 한분씩 계셔요. 그림 꼭 힘들어집니다. 예민한 어머니들도 포함해서요.

A. 아 근데 나 아르바이트할 때보다 생활비가 줄었어요. 이상해 꼭 야간수당 주는 곳으로 가세요! 주는 곳은 얼마 없는 것 같지만 잘 알아보고 가시길. 그리고 처음부터 방과후 같은 잡일 맡고 담임으로 가는 게 편합니다. 이거 말해도 되나.

Q.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희망차게 부탁드립니다, 선배님!

A. 새싹은 비빔밥에 들어가는 거고 교육대상 새싹은 우리가 돌보는 유치원생이죠. 아이들은 언제나 사랑스럽고 한 달, 한 달, 지날 때마다 커가는 게 눈에 보여서 정말 예뻐합니다.

A. 희망이란 신입생들에게만 허락된 유일한 특권?.. 어찌됐던 만족감은 큼니다. 후배님들 힘내세요!

/ 정리: 박시연 기자

도서관에 이용방법 숙지하고 책 읽고! 참여하고! 문화 상품권 받자!

◆ 대출도서반납 및 자료실 이용방법

1. 자료실을 이용 할 때는 항상 학생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입실 시에는 가방을 가지고 입실 할 수 없다.
2. 검색용 PC를 이용하여 대출여부를 확인 한 후 서가에서 직접 찾아 학생증을 담당자에게 제시한 후 대출한다.
3. 반납예정일은 대출 시에 꼭 확인한 후 반납예정일을 지키도록 하며, 반납일로부터 연체 된 기간 동안 대출이 정지된다.
4. 대출한 도서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동일도서나 유사한 도서로 변상하여야 한다.

◆ 도서관 이용자별 대출기간 및 책수

신분	대출책수	대출기간	대출연장
재학생	3권	7일	1회
교수	5권	15일	1회(최대2회)
자료열람실	5권	15일	1회(최대2회)
자료열람실	3책	7일	1회

◆ 도서관 이용자별 대출기간 및 책수

구분	이용시간
자료열람실	평일 07:00~23:00
자료열람실	평일 07:00~18:00

도서관 이용을 충분히 활용하자 / 박시연 기자

신문사 수습기자 모집

고구려대학교 신문사와 함께할 학생기자를 모집합니다. 함께할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의 신문사의 학생기자 생활은 대학생들의 좋은 추억과 보람이 될 것입니다.

- ◆ 문의사항: 고구려대학교 신문사
- ◆ 모집인원: 학기초 약간명

원고모집

여러분의 글, 학우들의 재밌고 감동적인 글을 기다립니다. 자유로운 글로 누구나 웃고 한편의 아름다운 추억이 될 수 있는 소중한 이야기를 모집합니다.

- ◆ 주제: 자유 글(시, 감상문, 수필, 논설문 등)
- ◆ 전화 | 061-330-7431
- ◆ E-mail cskang@kgrcackr
- ◆ 기사체보 및 원고



전라남도 나주시 다시면 백호로 125 본관 409호실 고구려대학교신문사

영양제! 마그네슘(Mg)

유아교육과 2년 박시연

마그네슘은 우리 신체에 함유 되어 있는 무기질 중 네 번째로 많은 다량 무기질이다. 또 마그네슘 항상성 유지는 신장에 의해 조절되고 여과된 마그네슘의 대부분이 재흡수 되고 우리 몸에 세포막을 안정시키고 신경의 자극을 전달하며 지방 단백질 합성 등에 관여한다.

마그네슘을 왜 먹어야 할까? 부족할 때의 대표적 증상으로 불면증, 눈꺼풀 떨림, 고혈압 유발, 근력약화, 골다공증, 우울증, 두통, 에너지감소, 수전증 등이 있

다. 이를 미루어 보아 인체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성분이라고 알 수 있다.

음식으로 섭취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영양제를 먹는 것이 좋다. 마그네슘은 클로로필에 존재하므로 녹색엽채류가 좋은 급원이다. 다른 급원 식품에는 곡류, 두류, 견과류 등이 있다. 대표적으로 호박씨, 멸치, 참깨 아몬드, 호두 등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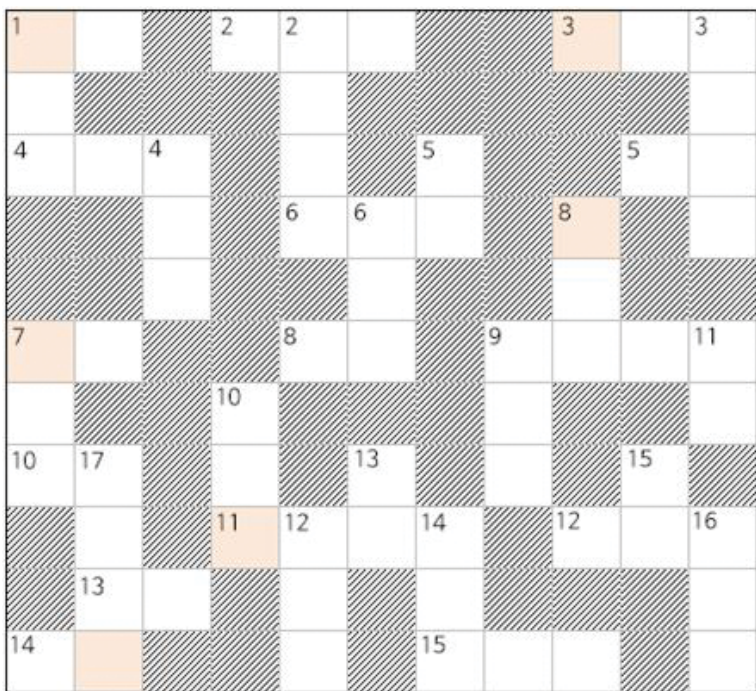
비타민이나 영양제를 고르는 팁으로

는 화학부형제, 합성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고르며 원재료 명과 가장 중요한 함량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물론 비타민과 마그네슘뿐만 아니라 다른 영양제도 마찬가지로 종류도 많고 가격도 천차만별이지만 그중 마그네슘 옥사이드는 시중에 제일 많이 나와 있기는 하지만 흡수율은 안 좋아서 하계수준이기 때문에 거르는 것이 좋다(참고 출처- 네이버 카페 '조한경원장님의 기능의학플러스')

Bad		Bad Better
vitamin A Acetate/29% Beta Carotene	VitaminA	Palmitate/ Mixed Carotene
Sodium Ascorbate	VitaminC	Ascorbic Acid / Ascorbyl Palmitate
Cholecalciferol	VitaminD	Vitamin D3
DL-Alpha Tocopheryl Acetate	VitaminE	D-Alpha Tocopherol
Thiamin Mononitrate	VitaminB1	Thiamin HCL
Riboflavin	VitaminB2	Riboflavin 5'-Phosphate
-	VitaminB3	Niacin / Niacinamide
D-Calcium Pantothenate	VitaminB5	Pantothenate
Pyridoxine Hydrochloride	VitaminB6	Riboflavin 5'-Phosphate
Folic Acid	VitaminB9엽산	Calcium Folate / L-5-Methyltetrahydrofate
Cyanocobalamin	VitaminB12	Methylcobalamin / Adenosylcobalamin
Calcium Carbonate	Calcium	Calcium Citrate
Ferrous Fumarate	Iron	Iron Picolinate
Magnesium Oxide	Magnesium	Magnesium Citrate / Magnesium Aspartate
Zinc Oxide	Zinc	Zinc Picolinate / Zinc Monomethionine
Sodium Selenate	Selenium	Selenium Picolinate
Cupric Oxide	Copper	Copper Picolinate/Copper Bisglycinate Chelate
Manganese Selenate	Manganese	Molybdenum Glycinate Chelate
Sodium Chloride	Chromium	Chromium Nicotinate Glycinate Chelate
Potassium Chloride	Molybdenum	Potassium Citrate / Potassium Aspartate
Calcium Borogluconate	Potassium	Boron Citrate / Boron Aspartate
Sodium Metavanadate	Vanadium	Vanadium Picolinate / Vanadyl Sulfate



★ 퍼즐 맞추기 ★



(가로열쇠)

- 흥부와 OO
- 기계적 에너지를 전기적 에너지로 변환하는 기기
- 유럽 대륙의 동부에서 시베리아에 걸쳐 있는 나라, 수도는 모스크바
- 항공, 열차, 버스 노선 따위의 맨 끝 지점 또는 많은 교통 노선이 모여있는 역
- 깃 결혼하였거나 결혼하는 남자
- 과일이나 털이 달려있고 귀신을 쫓는다는 의미가 있어 제사상에 올라가지 않는 다
- 아서 코난 도일의 작품에 등장하여 탐정의 대명사가 된 설목 OO
- 한집의 주가 되는 출입문을 이른다
- 제 몸에 벌어지는 일을 모를 만큼 정신을 잃은 상태
- 잘못한 일에 대하여 이리저리 돌려 말하는 구차한 변명
- 불편한 삶에 몸을 눕히고 쓸개를 맞본다는 뜻으로, 원수를 갚거나 마음먹은 일을? 이루기 위하여 온갖 어려움과 괴로움을 참고 견뎌 버린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지중해 연안과 소아시아가 원산지, 잎은 두껍고 털이 없으며 분처럼 흰빛이 돌고 가장자리에 불규칙한 톱니가 있으며 주름이 있어 서로 겹쳐지고 가장 안쪽에 있는 잎은 공처럼 둥글며 단단하다.
- 땅에 두드려 박는 기둥이나 몽둥이. 아래쪽 끝이 뾰족하다.
- 영단어 죽다 Die의 한글
- 출입문 밑의, 두 문실주 사이에 마루보다 조금 높게 가로로 댄 나무

(세로열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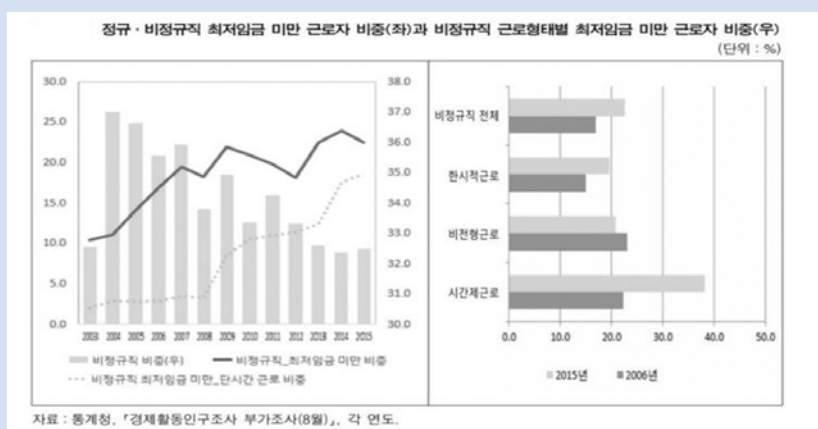
- 주로 아이들이 놀이를 하는 곳
- 재앙과 화난이 바뀌어 오히려 복이 됨을 이르는 사자성어
- 주로 봄날 햇빛이 강하게 쬐 때 공기가 공중에서 아른아른 움직이는 현상
- 긴 날뻐지의 중간을 꺾어 놓고 양쪽 끝에 한 사람씩 올라서서 번갈아 뛰어 오르는 놀이
- 입안에 위턱과 아래턱에 활 모양으로 배열되어 박혀 있으며 소화와 발음을 돕는 단단한 구조물
- 국보 제 1호, 조선 시대에 건립한 한양 도성의 남쪽 정문
- 구매자가 집에서 텔레비전, 상품 안내서, 인터넷 따위를 보고 상품을 골라 전화나 인터넷을 통하여 사는 통신 판매 방식
- 마술을 부리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 인간다운 따뜻한 맛
- 세계에서 제일 작은 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견종
-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질이나 품성
- 신발을 넣어두는 장
- 돌아간 아버지 위로 대대의 어른
- 공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어떤 문제에 대한 견해나 태도를 밝히기 위하여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글
- 같은 분야에서 자기보다 늦게 종사하게 된 사람
- 추성훈의 딸
- 달걀을 부쳐서 돌돌 말아 놓은 음식

10. 컴퓨터 11. 원시 12. 해솔 13. 공룡 14. 우주 15. 유류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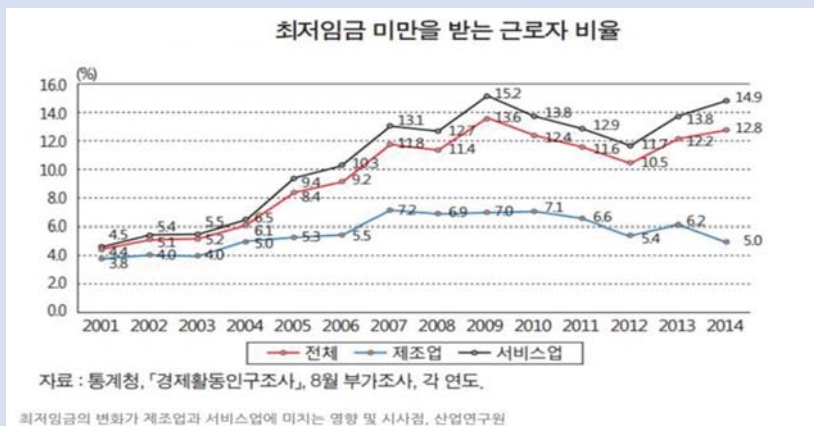
아르바이트의 필요 정보 - 최저임금 인상, 알아야 할 법들

2017년 6,470원, 2016년 6,030원, 2018년 최저임금은 2017년도보다 16.4%인 상된 금액인 7,530원이다. 하지만 과연 최저임금이 높아질수록 우리의 삶의 질도 높아질까,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학생들이 많을 것이다. 아르바이트를 겸하는 대학생이 우리학교에도 많을 것인데 마냥 좋아할 수 없는 문제로 들 수 있는 것이 피부로 느끼는 살인적인 물가, 절대 주지 않으려는 오너들의 꿈수들이 법과는 다르게 우리 주변엔 널렸다.

1년 이상 빠짐없이 근무해야 나오는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하루 전에 그만 두게 하는 꿈수, 인턴이라며 최저임금의 절반도 주지 않는 꿈수, 시급에 포함되지 않는 휴게시간을 늘리고 식대나 교통비, 상여금등을 최저임금에 포함시켜 월 급여를 최저임금 수준에 맞추는 꿈수, 한가할 때에는 일찍 퇴근시키고 바쁜 날에는 퇴근시간을 늦춰서 시간의 수당을 주지 않으려는 꿈수 등도 있다. 수많은 꿈수들 그리고 말만 좋은 열정페이 등이다.



이렇게 당할 수만은 없다. 무엇이든 알아야 한다, 그럼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필수적이며 기본적인 권리는 무엇일까?



아르바이트 수습기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법」의 내용이다. 제5조(최저임금액) 1. 수습 사용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 다만,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제외한다. 임금을 받지 못하였을 때는 진정·고소가 있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필요한 경우 사전상담을 한 후에 진정 또는 고소 여부를 결정한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 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할 수 있다(출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 진정은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말합니다. 고소는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요구를 말합니다(노동청 신고는 퇴사 후 14일 후 가능하다 출처: 생활법령정보 지방고용노동관서(진정, 고소)에 의한 체결).

우리는 이러한 생활법률을 알아야 한다. 이런 법을 왜 수업에서도 진행하여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게 하면 좋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중고등학생들의 실생활법률을 알려주어야 한다. / 박시연 기자

고구려대학교 발전기금 안내

대학의 사명과 교육목표를 달성하고 「전문직업인, 창의적 인재, 사회적 인재」의 3대 인재상을 구현하기 위해 고구려대학교에서 대학발전기금을 모금합니다. 여러분이 출연해 주시는 발전기금은 대학의 교육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각종 교육 시설과 학생 후생 복지시설을 확충하며 "세계화를 선도하는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해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고구려대학교 행정복지처



고구려대학교

◆ 발전기금의 종류

- 가. 일반기금: 기부자가 기금의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대학에 위임하여 출연금 기금
- 나. 지정기금: 기부자가 특정한 학과의 장학금이나 사업 등의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금의 사용용도를 지정하여 출연한 기금

◆ 발전기금의 사용처

- 가. 장학금지급 및 교육환경개선지원 사업
- 나. 대학중장기 발전기획 및 특성화 추진지원 사업
- 다. 세계화 시대에 따른 국제교류지원 사업
- 라. 기부자의 희망하는 사업 및 기타필요한 사업 등

◆ 기부안내

- 가. 약정하기(개인, 법인 및 단체)
 - ① 온라인 약정 ② 팩스, 이메일, 우편 약정(약정서 다운로드)
 - ③ 전화약정 ④ 방문약정
 - 상담전화: 061)330-7342
 - 이메일: sykim@kgr.ac.kr, 팩스: 061)330-7346
 - 우편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다시면 백호로 125 고구려대학교 행정복지처(58280)

나. 납입하기

- ① 무통장 입금(농협): 301-0123-3670-61)
- ② 방문납입
- ③ 기타 자산기부